

***희망평형에 따른 아파트 단위주거 계획요소에 관한 거주자의 태도

Residential Preference for Planning Components in High-Rise Condominium

김효정* / Kim, Hyo-Jeong

이현정** / Lee, Hyun-Jeong

Abstract

The study focused on residents' preference for planning components according to preferred size of high-rise condominiums. After being examined not only a brief chronological review of spatial composition and planning components in high-rise condominiums but also residents' attitudes toward and preference for current planning components, this research developed a wide range of planning component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The main survey was designed to find out the needs of residents for planning components in relation to high-rise condominiums. Descriptive and factor analysis were utilized to find out the residents' different preference for planning compon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idents were very aware of healthy housing, environmental friendly housing and digitally equipped housing, and their preferen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preferred size of condominium housing. In other words, residents preferring condominium housing with 99m² or smaller considered features of safety and healthy housing as important, those with between 102.3m² to 115.5m² recognized experiential space, and those with 118.8m² or larger regarded features of housing management and storage as important. It is suggested that the needs and wants of residents for housing have been various to be customized.

키워드 : 아파트 단위주거, 계획요소, 평형, 거주자 인식, 지원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날 주거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보화, 서비스화, 기술 및 문화, 여가증대,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주거공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의 계획요소가 도입되고 있다. 과거 은신처로서의 주거공간의 기능은 이제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다양한 경험과 욕구 등이 반영된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구성요소들이 주택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토지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주거유형으로 자리하게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재 주거공간이 지원하는 계획요소들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파트 단위주거 계획요소에 대해,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와, 희망평형별 고려하는 요소를 각각 파악한다.

둘째, 파악된 중요 계획요소 항목들을 거주자들이 주거의 어떤 기능적 맥락에서 인식하는지 평형별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평형별로 나타난 아파트의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주택이 지원하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평형별 주거의 지원성¹⁾ 문제의 현시점을 짚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거주자 태도 조사를 위한 계획요소 항목은 일간지와 인터넷 광고, 건설업체와 주택재료업체의 브로셔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때, 아파트 단위주거가 제공하는 세부적 계획요소에 해당하는 아이টে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총 128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1>

1) 들뜬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여 어디에 앉으려 할 때, 사람은 가까이 있는 돌중에서 앉기에 적당한 돌을 찾는다. 무수히 많은 돌중에서 그 돌을 고른 이유는, 앉기에 적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지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 돌은 지각자에게 「앉을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각자에게 발견된 환경이 갖추고 있는 속성을 Gibson(1904-1979)은 「지원성」(affordance)라고 하였다.

* 정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연구교수, ph.D

*** 본 연구는 포스코건설(주)의 학술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임.

조사 방법으로는 인터넷 웹서베이²⁾를 이용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평당 가격의 차이와 거주자의 특성, 그에 따른 계획 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서울, 경기도, 인천거주자로 한정하였고, 주택구입에 주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주부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총 124부가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Window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분산, 표준편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설문 구성

구분	범주	세부 항목
계획 요소	전반적 계획 (24문항)	창문면적, 환기, 세대분리, 비상대피공간, 방수조절, 영역구분, 문턱, 어분의방, 천장, 벽체 등
	각 공간별 계획 (27문항)	보조주방, 손세탁공간, 가사작업공간, 부부침실전용욕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크기, 건조대, 실내정원, 놀이공간 등
	수납 계획 (10문항)	수납도어, 거실, 안방, 욕실, 발코니, 현관, 회전식도어신발장, 창고, 수납방 등
	인테리어 (17문항)	아트월, 조명, 원목온돌마루, 대리석, 천연석재, 타일, 냄세제 거머잡재, 건감마잡재 등
	설비및 첨단 시스템 계획 (50문항)	소음차단공법, 비상운행엘리베이터, 에어컨, 스피커, 자동환기, 습도조절, 질수형양변기, 비상벨, 청정정수시스템, 청소시스템, 핸드프러시퍼커피, 다기능리모콘 등

2. 문헌 고찰

2.1. 단위주거 계획요소의 변천

주거공간은 환경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인간의 경험의 일부이며,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시대변천과 발전에 따라 변화하며, 생활의 주요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하고 고도화된 주거공간의 기능적 계획요소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역사는 196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으로 도시 가구의 증가와 주택난을 가져왔으며, 이에 곧 주택문제 해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대안으로서 공동주택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공동주택은 개성의 추구는 거의 무시되었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편의성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이었으며, 점차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힘입어 오늘날까지 변모해왔다.³⁾

<표 2>는 문헌과 기존의 연구(하병철, 2001, 배정민 외, 2001)를 통해 제시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거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단위주거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단위주거 계획요소의 시대별 변천

시대	사회적 변화	공동주택 전반 변화	단위주거 계획요소
1960년대	· 경제개발의 본격화로 산업화, 도시화. · 근검, 절약이 사회 지배적	· 편의성에 치중. · 배치형태: 획일적 일자형에서 Y자형 등장. · 마포아파트.	· 엘리베이터 도입. · 공적공간으로서 거실도입. · 반침의 도입. · 수세식 화장실. · 입식구조 등장.

2) http://www.azoomma.com 이용.

3) 하병철, 공동주택의 거주자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연도	가치관	공공시설을 포함한 최초의 아파트단지 등장.	·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
1970년대	· 지속적 경제성장 · 산업화, 도시화로 지가 상승. · 재료와 기술의 발달. · 주택 수요 증가	· 고밀화, 고층화. · 세대규모 다양. · 소규모에서 대형아파트로 · 중산층 아파트 증가. · 한강변과 강남 개발. · 주택단지조성에 신기원 인식. · 주택을 경제적 가치로 인식. · 아파트의 투기 풍조.	· 좁은 발코니 · 다용도실의 공간개념. · 각 공간의 독립성 확보.
1980년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물질적 풍요, 대량 생산. · 과잉소비 현상. · 개인의 가치 존중. · 차량수요 증가	· 전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 · 20층이상 초고층 아파트 · 주택 내부개조 늘어남. · 주차공간이 단지내처에 등장. · 스카이라인의 변화. · 배치형태의 다양화. · 아파트의 양적 성장.	· 평면유형의 다양화 · 선택시양제도 · 부부전용침실 · 드레스룸, · 부부의 비중 확대. · 욕실 2개 유형 시도. · 가족공동공간으로서 거실. · 자재의 고급화. · 실내가변형 개념.
1990년대	·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활발. · 환경문제 대두.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 신도시 개발.	· 고급화, 개성화, 차별화. · 친환경, 생태주거. · 주상복합 아파트 · 독신자 아파트, 3세대 동거형, 재택근무형 아파트. · 평면 고전화현상 심화.	· 재택근무, 홈쇼핑, 홈오피스 · 원격검침, 무인경비시스템. · 사이버 아파트 출현. · 선택형, 옵션형, 가변형, 주문형, 맞춤형 개념. · 발코니를 통해 현관으로 들어가는 형식. · 부부의 남향 배치. · 개방형 홀바. · 공기청정시스템, 중앙집중청소시스템, HAS시스템, · 호텔식 프론트 데스크.

3. 단위주거 계획요소에 대한 인식과 태도

3.1. 조사대상자 특성

일반적으로 분양면적 기준으로 5단위나 10단위의 군집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므로, 이사 시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26~30평, 31평~35평, 36평~40평, 41평~45평, 46평~50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41평 이상의 가구는 통계처리하기에 표본수가 적어, 이를 다시 30평이하(28가구), 31평~35평(56가구), 36평이상(40가구)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

<표 3>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가구수(%)			구분	가구수(%)				
	30평 이하	31평~35평	36평 이상		30평 이하	31평~35평	36평 이상		
동거 가족 수	2명	6(21.4)	4(7.1)	3(7.5)	평균	500이상	0(0.0)	2(3.6)	4(10.0)
	3명	14(50.0)	13(23.2)	7(17.5)	수독	계	28(100)	56(100)	40(100)
	4명	7(25.0)	34(60.8)	22(55.0)	주부	전업주부	20(71.3)	44(78.6)	32(80.0)
	5명	1(3.6)	5(8.9)	5(12.5)	취업	취업주부	8(28.6)	12(21.4)	8(20.0)
	6명	0(0.0)	0(0.0)	3(7.5)	유무	계	28(100)	56(100)	40(100)
	계	28(100)	56(100)	40(100)					
월 평균 소득	200미만	3(10.7)	5(8.9)	7(17.5)	현재 평형	25평이하	19(67.9)	22(39.3)	6(15.0)
	200-300	19(67.9)	23(41.1)	11(27.5)		26-30평	6(21.4)	17(30.4)	2(5.0)
	300-400	5(17.8)	21(37.5)	14(35.0)		31-35평	3(10.7)	16(28.6)	23(57.5)
	400-500	1(3.6)	5(8.9)	4(10.0)		36평이상	0(0.0)	1(1.7)	9(22.5)
	계	28(100)	56(100)	40(100)					

3.2. 단위주거 계획요소에 대한 공통적 인식

단위주거 계획요소의 각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중요도 분석에서 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을 수집하여 거주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들 계획요소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각각의 그룹에 대해 아래 <표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안전/쾌적성 요인, 환경친화 요인, 기능성 요인, 자연친화 요인,

관리용이성 요인, 생활편의성 요인, 경제성 요인, 유니버설 요인, 정보통신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4>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4.0이상의 중요도를 보인 항목

구분	계획요소	M (SD) 순위	요인	eigen value	분산변량(%) 누적변량(%)
계획요소 항목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4.79(.58)	안전/쾌적성 요인	5.625	19.395 19.395
	습기가 제거되는 마감재	4.68(.50)			
	충간 소음차단 공법	4.67(.81)			
	정전시 비상전기 운행 엘리베이터	4.62(.53)			
	욕실바닥에 미끄러지지않는 마감재	4.58(.78)			
	비상대피공간	4.50(.63)			
	실내공기 자동환기 시스템	4.48(.93)			
	건강마감재(황토바닥재, 참숯벽지, 수맥 차단바닥재)	4.47(.68)			
	소음차단도어	4.43(.86)			
	각방에서 개별온도조절 가능시스템	4.36(.84)			
	절수형 양변기	4.27(.81)			
	습도 조절 가능한 욕실	4.19(.71)			
	부위에 청정정수 시스템	4.11(1.04)			
	발코니에 물쓰는 공간 마련	4.09(.70)			
	에어컨실외기 공간마련/냉매배관	4.03(.98)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욕조 설치	4.03(.97)			
	천장에서 내려오는 빨래건조대	4.02(.89)			
부위에 음식물 탈수기	4.02(1.05)				
부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4.02(1.08)				
자연환기 잘 되는 설계	4.71(.61)	환경친화 요인	2.438	8.408 27.803	
냉난방 에너지소비 줄임	4.33(.83)				
부위의 지저분함 가려주는 설계	4.31(.89)				
냄새가 제거되는 마감재	4.59(.78)	기능성 요인	2.055	7.087 34.890	
빨래건조대를 남쪽 발코니에 설치	4.13(.96)	자연친화 요인	2.032	7.007 41.897	
수납공간에 문설치	4.02(1.21)	관리용이성 요인	1.619	5.583 47.479	
각 방의 스위치로 조명의 밝기조절	4.07(.62)	생활편의성 요인	1.356	4.675 57.212	
부위에 절수형 풋밸브	4.09(.83)	경제성 요인	1.237	4.265 61.476	
문턱 제거	4.15(.75)	유니버설 요인	1.165	4.016 65.493	
집안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가능	4.46(.66)	정보통신 요인	1.108	3.822 69.315	

3.3. 단위주거 계획요소에 대한 평형별 태도

(1) 30평 이하

희망평형이 30평이하인 집안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자연환기가 잘 되는 설계', '습기가 제거되는 마감재', '충간 소음차단 공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기/욕조/세면기의 분리'(4.11), '부위에 행주도마 살균기 설치'(4.00)항목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쾌적성 요인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정전시 비상전기운행 엘리베이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욕조 설치' 항목이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공통적 결과에서 '에어컨실외기 공간마련/냉매배관'이 안전/쾌적성 요인에 들어가 있었던 것에 반해, 30평 이하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작은 평형에서 면적할애를 의식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

<표 5> 30평 이하에서 4.0이상의 중요도를 보인 항목

구분	계획요소	M(SD)순위	요인	eigen value	분산변량(%) 누적변량(%)
O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4.79(.42)	건강/쾌적성 요인	7.506	31.273 31.273
	충간 소음차단 공법 사용	4.75(.44)			
	습기가 제거되는 마감재	4.71(.46)			
	실내공기 자동환기 시스템	4.57(.69)			
	소음차단도어	4.46(.69)			
	절수형 양변기	4.46(.58)			
	욕실에 미끄러지지않는 마감재	4.46(1.00)			
	건강마감재(황토바닥재, 참숯벽지, 수맥 차단바닥재)	4.39(.83)			
	부위에 음식물 탈수기	4.25(.80)			
	부위에 청정정수 시스템	4.21(.63)			
	천장에서 내려오는 빨래건조대	4.14(.71)			
	부위에 절수형 풋밸브	4.11(.63)			
	발코니에 물쓰는 공간 마련	4.11(.63)			
	변기,욕조,세면기의 분리	4.11(.92)			
	부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4.07(1.09)			
	습도 조절 가능한 욕실	4.04(.69)			
	부위에 행주도마 살균기 설치	4.00(1.05)			
정전 시 비상전기운행 엘리베이터	4.58(.58)	안전성 요인	3.191	13.296 44.569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욕조 설치	4.11(.92)				
집안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가능	4.25(.80)	정보통신 요인	2.448	10.200 54.769	
에어컨실외기 공간마련, 냉매배관	4.04(.69)	공간할애 요인	1.883	7.846 62.615	
냄새가 제거되는 마감재	4.46(1.00)	기능성 요인	1.526	6.360 68.975	
각 방 개별온도조절 가능시스템	4.46(.74)	생활편의성 요인	1.186	4.942 73.917	
자연환기 잘 되는 설계	4.75(.44)	환경친화 요인	1.153	4.805 78.723	

* O 표시는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임.

(2) 31평이상~35평이하

31평이상~35평이하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충간 소음차단 공법', '자연환기가 잘 되는 설계', '습기가 제거되는 마감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와 비교하여, '넓은 창문 면적'(4.00), '욕실 어느하나에는 샤워실 필수'(4.02)항목이 추가되어 나타났다.

'각 방의 스위치로 조명밝기 조절' 항목이 '발코니에 물쓰는 공간 마련', '넓은 창문 면적' 등의 항목과 연관하여 그룹화되었는데 이는, '각 방의 스위치로 조명밝기 조절'이 더 이상 생활편의성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경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표 6> 31평이상~35평이하에서 4.0이상의 중요도를 보인 항목

구분	계획요소	M(SD)순위	요인	eigen value	분산변량(%) 누적변량(%)			
O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4.68(.51)	안전/쾌적성 요인	4.502	20.462 20.462			
	정전 시 비상전기운행 엘리베이터	4.59(.54)						
	충간 소음차단 공법	4.57(.99)						
	실내공기 자동환기 시스템	4.54(.63)						
	비상대피공간	4.45(.64)						
	각방 개별온도조절 가능시스템	4.36(.67)						
	소음차단도어	4.25(1.00)						
	문턱 제거	4.16(.91)						
	습도 조절 가능한 욕실	4.13(.76)						
	절수형 양변기	4.11(1.02)						
	천장에서 내려오는 빨래건조대	4.00(.79)						
	자연환기 잘 되는 설계	4.63(.42)				환경친화 요인	3.349	15.220 35.683
	부위의 지저분한 부분 가려줌	4.25(1.00)						
	냉난방 에너지소비 줄임	4.21(.96)						
	빨래건조대를 남쪽발코니에 위치	4.09(1.08)				건강 요인	2.113	9.606 45.289
	부위에 청정정수 시스템	4.04(1.04)						
	집안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가능	4.46(.83)				정보통신 요인	1.881	8.548 53.837
발코니에 물쓰는 공간 마련	4.05(.70)	공간 경험성 요인	1.390	6.320 66.876				
각 방의 스위치로 조명밝기 조절	4.00(.57)							
넓은 창문 면적	4.00(.88)							
욕실 어느하나에는 샤워실 필수	4.02(.09)	편리성 요인	1.189	5.406 72.282				

* O 표시는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임.

31평이상~35평이하 집단에서는 환경친화요인과 건강성 요인으로 각각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 요인으로 분리돼 있었던 '문턱 제거' 항목은,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고 '비상대피공간'이나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항목과 동일 그룹 안전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36평 이상(50평이하)

이 집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층간 소음차단 공법', '자연환기가 잘 되는 설계', '습기가 제거되는 마감재', '냄새가 제거되는 마감재', '소음차단 도어'의 순이다. '중양집진식 청소시스템'(4.28), '내부에서 사용가능한 큰 창고'(4.03), '부엌에 행주도마 살균기'(4.00), '공용/개인영역 분리'(4.00) 항목이 이 집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추가되어 나타났다.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부엌의 지저분한 부분 가려줌'항목이 분리되어 별도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시각성을 증시하는 경향으로 파악된다.

36평이상 집단에서는 관리용이성 측면을 쾌적성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에서 안전/쾌적성 요인에 속한 '비상대피공간'항목이 이 집단에서는 따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 시 안전성 문제를 그 외의 안전관련 계획요소와는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표 7> 36평 이상에서 4.0이상의 중요도를 보인 항목

n=40

구분	계획요소	MSD(순위)	요인	eigen value	분산변량(%) 누적변량(%)
○	층간 소음차단 공법	4.83(45)	관리용이성/ 쾌적성 요인	8.742	27.318 27.318
	습기가 제거되는 마감재	4.72(51)			
	냄새가 제거되는 마감재	4.68(53)			
	소음차단도어	4.68(53)			
	정전시 비상전기운행 엘리베이터	4.68(48)			
	집안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가능	4.63(59)			
	건강마감재(황토바닥재, 참숯벽지, 수맥 차단바닥재)	4.58(64)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4.53(91)			
	습도 조절 가능한 욕실	4.30(76)			
	중양집진식 청소시스템	4.28(78)			
	부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4.25(93)			
	에어컨실외기 공간마련/냉매배관	4.25(71)			
	부엌에 접수형 풋벨브	4.22(80)			
	부엌에 음식물 탈수기	4.22(77)			
	발코니에 물쓰는 공간 마련	4.15(74)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욕조 설치	4.05(1.08)	가능성 요인	3.064	9.574 36.891	
내부에서 사용가능한 큰 창고	4.03(1.19)				
천장에서 내려오는 빨래건조대	4.00(1.06)				
○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4.85(36)	경제성 요인	2.722	8.507 45.398
	실내공기 자동환기 시스템	4.40(1.22)			
○	각 방 개별온도조절 가능시스템	4.33(1.19)	유니버설 요인	2.278	7.120 52.518
	부엌에 정정정수 시스템	4.10(1.24)			
○	수납공간에 문 설치	4.08(1.33)	환경친화 요인	1.940	6.063 58.581
	문턱 제거	4.13(91)			
○	자연환기 잘 되는 설계	4.78(42)	안전성 요인	1.663	5.197 69.260
	비상대피공간	4.53(64)			
○	부엌의 지저분한 부분 가려줌	4.28(1.13)	시각성 요인	1.432	4.474 73.734
	부엌에 행주도마 살균기 설치	4.00(1.09)			
○	공용/개인영역 분리	4.00(88)	프라이버시요인	1.129	3.912 77.646

○ 표시는 평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임.

4. 결론

주택이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지원하는 요소와 아이터들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단위주거의 규모가 거주자의 요구를 변화시키는 변수라는 가정 하에, 아파트 희망평형에 따라 거주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계획요소와 그에 따른 인식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1) 희망 평형이 30평 이하에서는, 건강과 위생에 관한 요소가 추가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건강 측면을 쾌적성 측면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안전성 측면이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작은 평수의 경우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별도로 등장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31평이상 35평이하 집단에서는, 안전 측면을 쾌적성 측면과 관련하여 인식하며, 안전에 대한 별도의 요인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스위치로 조명밝기 조절이 더 이상 생활편의성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경험성으로도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36평 이상 집단에서는 시각성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였고, 쾌적성 측면을 관리용이성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지 관리와 수납 관련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져야 하겠다.

주거공간의 계획요소들은 평형별로 세분화, 다양화되어 있고, 거주자의 인식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거주자에 따라서 계획요소의 맞춤형, 주문화(Customized)의 필요성 또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무수히 많은 계획요소들 중에서, 주거공간이 거주자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향의 요소를 지원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장경수·김경순, 공동주택 평형별 주부들의 주거관에 관한 조사연구 -20평형대~50평형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 배정민·정유선·윤정숙,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2호.
3. 김수진·이영수·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호.
4. 신중진·임지영,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의 차별화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2호.
5. 김대익·이윤규,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의 지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0호.
6. 오정은, 공동주택계획연구의 전개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7. 하병철, 공동주택의 거주자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